

## 16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보고

제106회기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종운  
서 기 이원호

### 1. 조직

- 위원장 : 김종운
- 부위원장 : 김승규
- 서 기 : 이원호
- 회 계 : 정춘기
- 총 무 : 정인철

### 2. 회의

####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11. 29(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위원장 : 김종운 목사, 부위원장 : 김승규 목사, 서기 : 이원호 목사

회계 : 정춘기 장로, 총무 : 정인철 목사

② 다음회의는 추후 공지하기로 하다.

####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2. 3. 7(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수입사항에 대하여 소재열 목사 초청하여 자문을 받다.

② 소재열 목사에게 여성사역자의 노회가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서를 요청하기로 하다.

③ 연구비는 10만원 지출하기로 하다.

④ 차기 회의 시 여성사역자 대표자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다.

⑤ 제105회 정기감사 지적에 관하여 확인하여 참고하기로 하다.

⑥ 차기 모임은 4월 11일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 3) 제3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2. 4. 11(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여성사역자 대표자 2인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② 소재열 목사가 제출한 연구서를 확인 검토하다.

③ 전국교회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여전도사(여전도인은 제외) 현황을 5월 31일까지 파악하기



위해 4월 18일(대략적으로 전국의 정기노회가 끝난 시점) 이후에 노회로 공문 발송하되 총 2회 발송하기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는 6월 13일 1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4) 제4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2. 6. 13(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국 각 노회별로 여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현황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들의 졸업 이후 사역현황을 보고받고 검토하다.
- ③ 7월 25일(월) 11시 총회회관에서 총회보고서 문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기로 하다.
- ④ 제106회 중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재별 목사의 연구문서와 전국교회 여전도사 사역현황 조사한 문서를 통해서 보완하기로 하다.

#### 5) 제5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2. 7. 26(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7회 보고서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최종보고

### 1.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제106회 총회가 여성사역자들의 노회 소속 건만 허락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따른 후속처리 방법을 연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2. 최종보고

본 위원회는 제106회 총회에서 수임한 여성사역자 노회 소속에 관한 후속처리 방법을 연구한바 헌법정치 제3장 제3조(교회의 임시 직원의 1항(전도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노회는 전도사(여) 고시에 합격한 자를 목사후보생에 준하여 노회 소속으로 관리하며 “여 교역자”로 지교회에서 사역하게 한다. 사역지를 변경할 경우, 당회장의 승인으로 노회 간 이명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둘째, 여 교역자(전도사)의 노회 고시는 각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준한다.

셋째, 각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을 경우, 노회에서 서약함으로써 노회에 소속됨을 확인한다.

넷째, 여 교역자(전도사)의 노회 고시 자격은 본 총회 직영신학교와 인준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하여 당회장의 추천으로 한다.

## 총신신대원 여동문회 사역현황 2022년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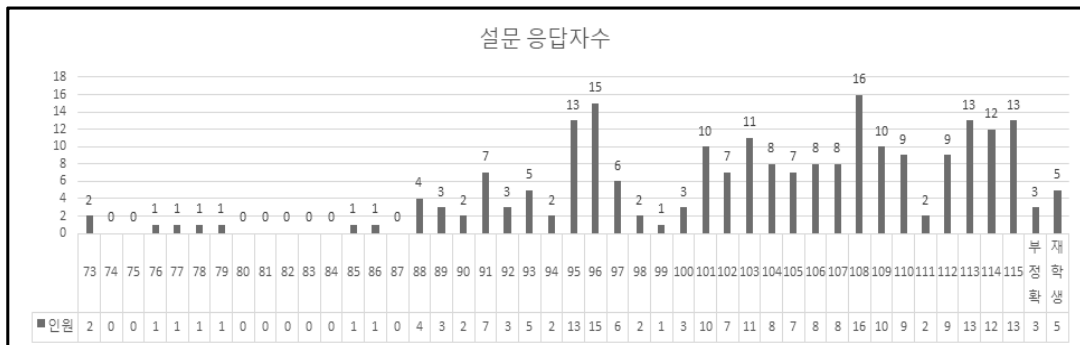
※ 조사기간: 2022년 5월 20일 ~ 6월 9일 (20일간)

※ 응답자수: 224명 (졸업생 219명, 재학생 5명)

26회기 총신신대원여동문회에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여동문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신대원 졸업생 219명과 재학생 5명을 포함하여 총 224명이다. 본 자료에서 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 1. 응답자의 기수

본 설문에 응답한 224명의 기수는 아래와 같다. 부정확하거나 재학생인 경우를 제외하면 216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후반 이후의 동문들이 주로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100회기 이후의 동문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는 70기수, 80기수 대의 졸업자의 사역 현황은 본 설문에 담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졸업한 동문들 보다는 최근에 졸업한 동문들이 참여하여 사역 현황과 그들의 목소리가 설문에 담겨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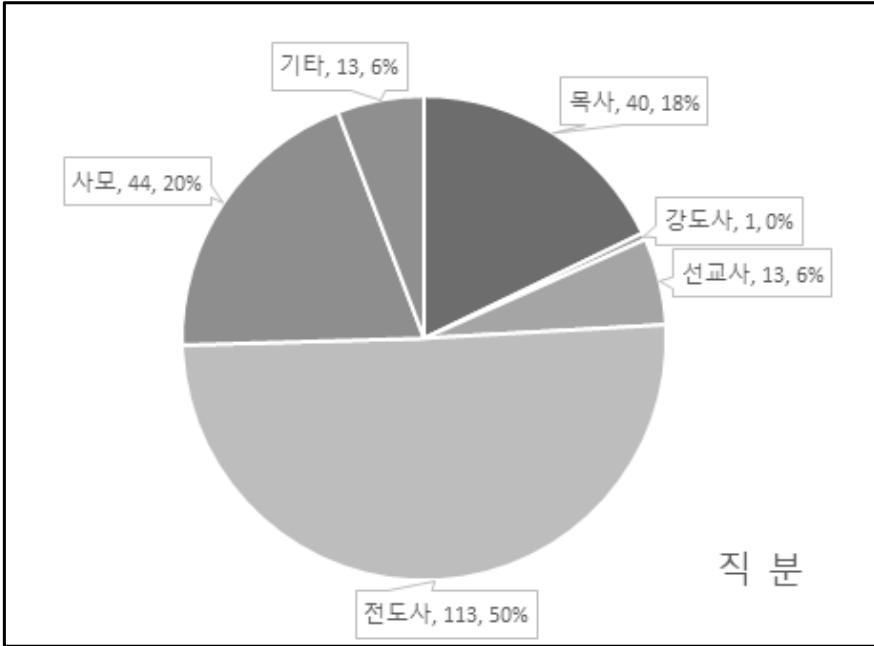
### 2. 응답자의 직분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목사는 40명(18%), 강도사 1명(0%), 선교사 13명(6%), 전도사 113명(50%), 사모 44명(20%), 기타 13명(6%) 등으로 나타났다. 목사 40명 중에는 선교사와 겸한 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모 44명 중에는 전도사와 사모를 겸하는 18명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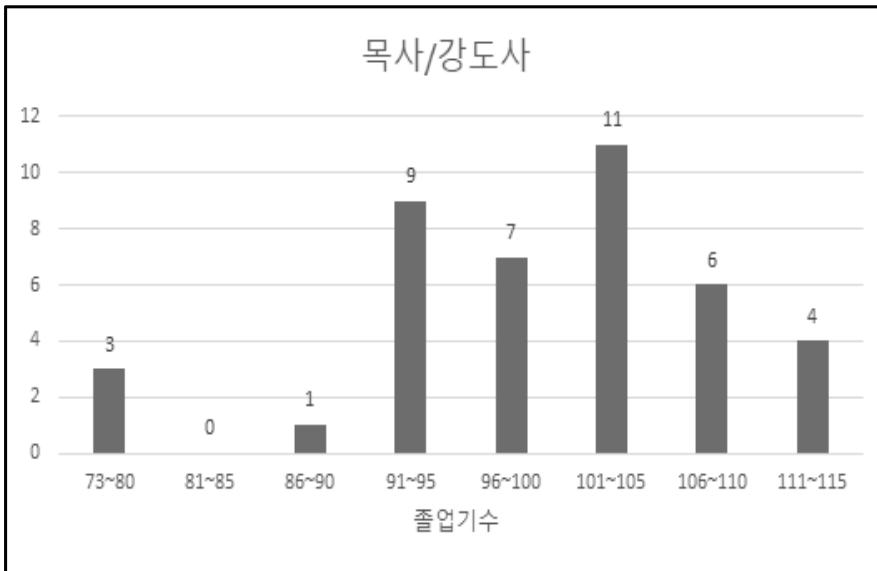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여동문들의 절반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 외에 사모(20%), 목사(18%), 선교사(6%) 순으로 나타났다. 선교사의 비율이 적은 것은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문들이 주로 설문에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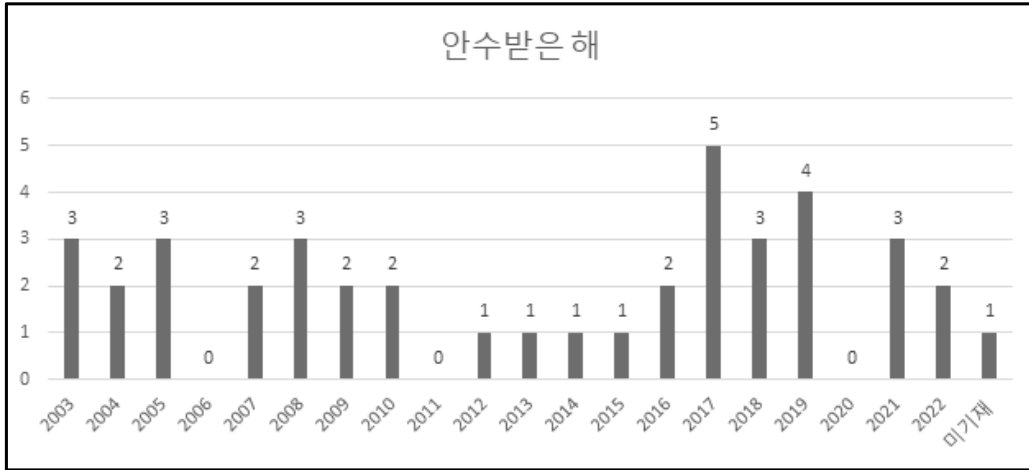
고무적인 것은 전통적으로 여동문들의 주된 진로로 인정받고 있는 사모와 목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특히 목사/강도사 안수를 받은 여동문들의 졸업기수를 파악하면 90기수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는 본 설문에 응한 다수의 응답자들이 90기수 이후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즉, 90기수 이후부터 갑자기 안수를 받기 시작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도 역시 꾸준히 안수를 받는 동문들이 있었으나 본 설문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3. 안수받은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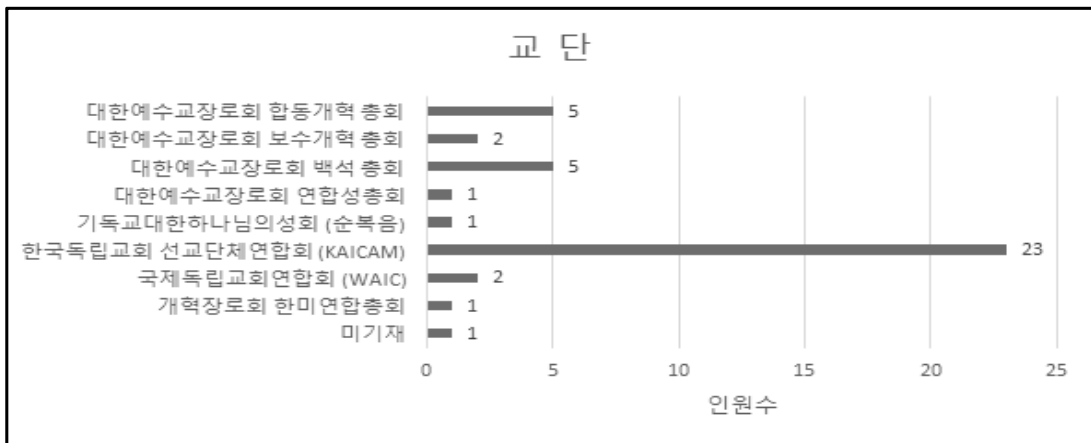
여동문들은 언제부터 타교단에서 안수를 받기 시작했을까?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 중 최초로 안수를 받은 해는 2003년도로 나타났다.

통합측에서 여성안수가 통과된 해인 1995년에 총신신대원에서는 여원우회 회보에 여원우들을 격려하는 글을 쓴 교수가 총회로부터 경고를 듣는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1~2년쯤 후에는, '향후 20년간 총회에서 여성안수에 관하여 발언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그로부터 6년 지난 2011년도에 통합측에서 배출된 여성목회자는 총 1,31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합동측에서는 여성안수에 관하여 발언조차 하지 못한 채 1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2003년도에 합동측 총회장의 기저귀 발언이 있었고, 그와 비슷한 무렵부터 총신신대원여동문들은 타교단에서 안수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본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때 이후로 거의 매년 여동문들은 타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최근 들어 그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 4. 안수받은 교단



여동문들은 어떤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있을까? 여동문들이 안수를 받는 교단은 다양하다. 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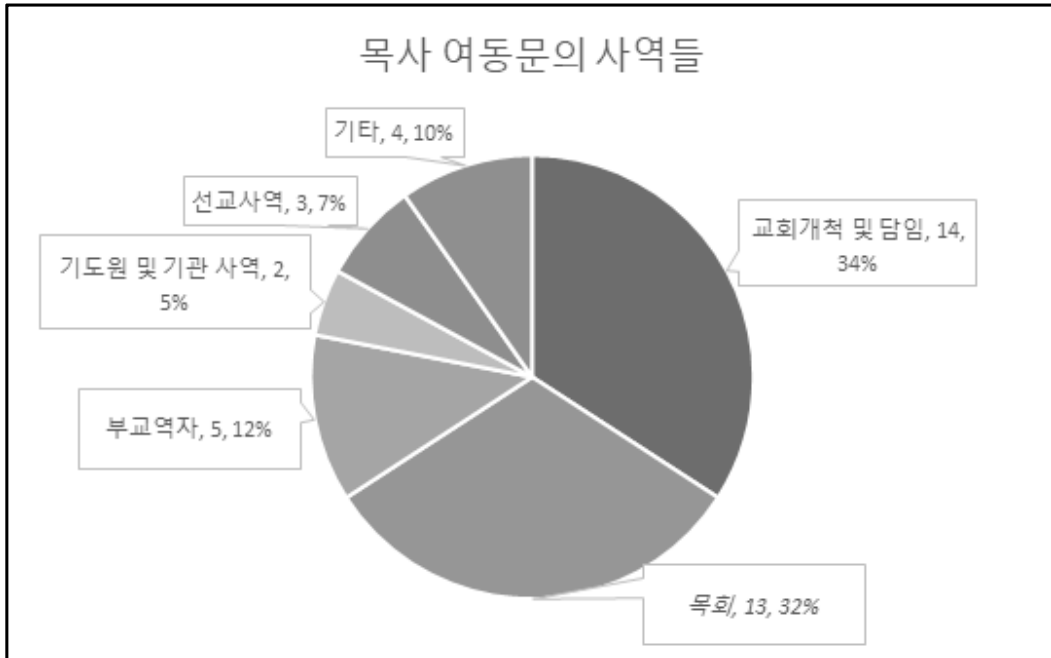
에서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 중 압도적으로 많은 23명이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검)에서 안수를 받았다. 합동개혁총회와 백석총회가 5명씩, 그 외에 보수개혁총회,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연합성총회, 순복음, 한미연합총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 5. 여동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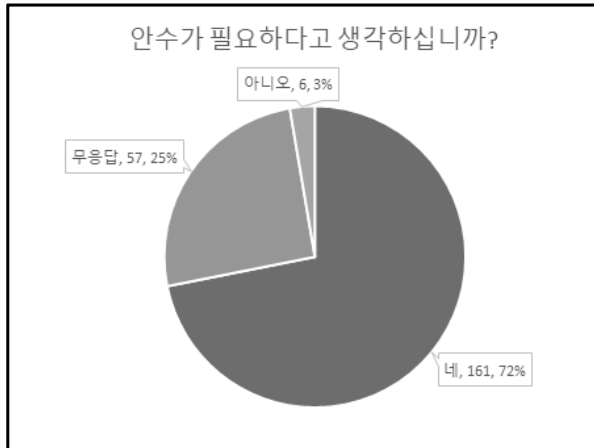
여동문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열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다양하였다. 흔히 알려진 대로 많은 동문들이 교회 현장에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등의 주일학교와 청년부, 새가족부, 교구 심방 사역, 아기학교, 실버목장 등을 섬기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행정, 재정, 전도, 설교, 제자훈련, 성경공부 강사, 상담, 교회 내 대안학교, 어린이집 등 그야말로 전천후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선교단체 간사, 북한선교, 방송선교, 대안학교 교사, 기도원 사역 등을 하고 있는 동문들도 있었으며,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겸하고 있는 동문들도 있었고, 교수, 연구원, 학원 강사, 회사원, 디자이너, 언론사 취재&영상 기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영업 등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목사/강도사로 안수를 받은 동문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



목사/강도사로 응답한 41명의 동문들 중에서 월등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14명(34%)이 답한 ‘교회 개척 및 담임’ 사역과, 13명(32%)이 응답한 ‘목회’ 사역이다. 이 둘의 응답을 합하면 66%에 해당하는 목사/강도사 동문들이 목회 현장의 필요에 따라 안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3에 해당하는 목사/강도사 동문들이 답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거나 개척 사역을 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많은 여성사역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안수가 허용될 때 더 많은 사역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이며, 목회 현장은 더욱 다양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목회가 개발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 6. 여동문들은 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성 안수에 대해 문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여동문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161명(72%)은 여성안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57명(25%)은 이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25%의 여동문들은 안수 문제에 관해 입장을 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본인이 처한 정황상 안수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무관심한 경우일 수 있다.

'아니오'라고 답한 6명(25%) 중에서 전도사 1명과 사모 4명은 안수가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본인들이 사역을 하는 데 굳이 안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사모 1명은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여동문들의 70% 이상은 여성안수를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7. 동기들 중 안수를 받은 동문들이 있는가?

본 설문조사 마지막 문항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총신신대원여동문들 중 목사 동문은 90~100여명에 이른다.

## 8. 그동안 신대원을 졸업한 졸업자 현황 어떻게 되는가?

2019년도에 본 총신신대원여동문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6기부터 114기에 이르기까지 총신신대원여동문회원은 약 1,654명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졸업생 115기졸업생 63명을 포함하면 1.717명에 이른다. 이 조사는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졸업생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중간에 졸업자를 파악하지 못한 기수도 있다. 이 조사 결과는 학교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숫자가 아님을 밝힌다. 그동안 총신신대원 졸업생은 1,700명 이 조금 넘는다고 추산할 수 있다.



## 9. 결론

설문조사 결과 총신신대원여동문들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사역이 가능한 영역을 찾아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양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개척과 담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총신신대원 여동문회장 김희정



##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청원의 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노회에 소속한 여성사역자들의 총회연금 가입 허락 청원

총회연금은 노회에 소속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전 총회결의로 이미 여성사역자들이 노회 소속하도록 허락해주셨기에 총회연금 가입 또한 허락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2.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청원

여성사역자의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은 단기간에 처리 및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에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수립과 로드맵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로 전환시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3. 여성 준목 제도 연구 허락 청원

본 장로회 헌법의 교리와 정치가 개정되지 않는 한 여성 안수는 불가하나 총회 헌법 개정 전까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여성사역자의 지위향상과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 준목 제도를 연구하도록 허락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22년 9월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김 종 운

서 기 이 원 호